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2년 10월 8일 (월)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5-803) 대구 남구 대명동 447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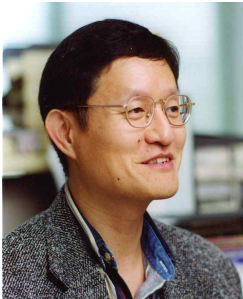
I 이달의 소식

1. 대구지부 심화과정 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62) 덮개효과 - 이재만 | 2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41) 아간의 죄와 아이성의 정복 - 이종현 역 | 4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27) 모세언약 - 김무현 | 7쪽 |
| 4.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동물 카멜레온 - 대구지부 | 9쪽 |

인사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POP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 문화가 드디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가 어떻게 세계인들의 감성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는지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강남스타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강남스타일을 때로는 따라 부르기도 하고 말춤을 출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풍조 가운데 밀려 요동하지는 말아야 합니다(엡 4:14).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유행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세상과 접촉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남스타일을 넘어 천국스타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10월도 주님의 참된 자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로 승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 종 현 올림 -

1. 대구지부 정기모임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는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원 프로그램으로 심화과정을 진행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현충로역 2번 출구에서 23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문의: ☎ 070-4095-6420



덮개효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 하리라” (창 8:22)

While the earth remaineth, seedtime and harvest, and cold and heat, and summer and winter, and day and night shall not cease. - Gen 8:22, KJ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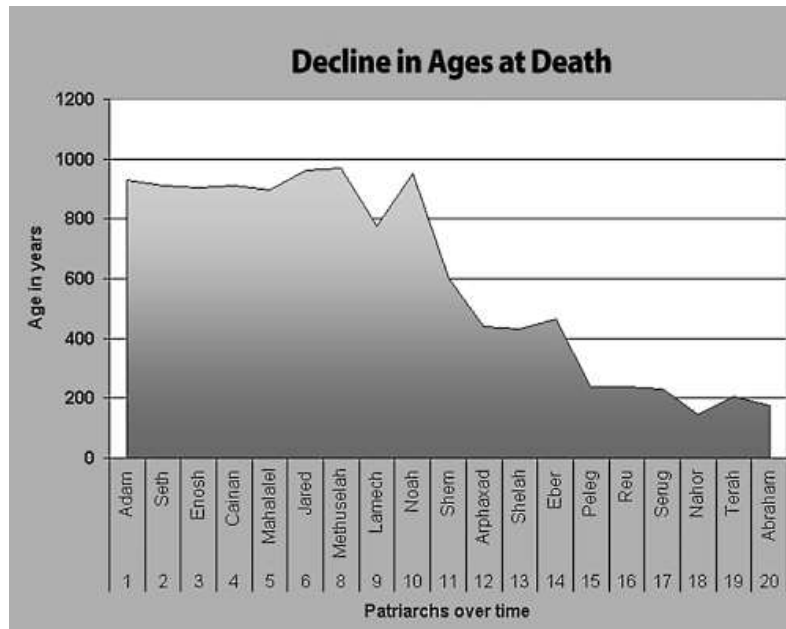
노아홍수에 관한 창조과학 내용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덮개효과(canopy effect)”라는 용어다. 그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surface of water)에 운행했던(창 1:2) 물이 둘째 날 궁창을 통하여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1:6-7), 노아홍수 이전에는 이 궁창 위의 물이 덮개처럼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덮개인 궁창 위의 물이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7:11)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전 지구적으로 덮여있던 이 궁창 위의 물이 있었다가 없어졌다면, 지구상에 분명한 환경적 변화를 겪었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노아홍수 전후를 두고 이들을 암시하는 여러 차이점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차이점은 덮개효과 모델로 잘 설명된다.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홍수 이전에 언급이 없었다가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가 언급된 것도 궁창 위의 물의 유무차이로 쉽게 이해될 수 있었다. 즉 궁창 위의 물의 존재는 마치 오늘날의 온실효과와 같은 역할을 했었을 것이므로 홍수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나 눈은 홍수 이전에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홍수 이전인 창세기 5장에 나열된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 이상 되었다가 노아홍수가 지난 다음 이어지는 11장 족보의 나이가 갑자기 감소하는 추세 역시, 대홍수 전후에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더욱 촉진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노화를 일으키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돌연변이로 여기는데, 대홍수 이전의 궁창 위의 물은 당시에 태양에서 오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단파들을 잘 차단해 주었을 것이다. 반면에 대홍수 동안에 궁창 위의 물 층이 사라지므로 인체에 해로운 단파가 지상에 도달하기 쉬었으며, 이는 노화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울러 돌연변이는 우리의 신체뿐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에도 발생하였으므로, 식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음에 틀림없다. 추위와 더위도 노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요소로 보아 홍수를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궁창 위의 물의 제거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도 덮개효과의 모델을 지지한다.



출처: answersingenesi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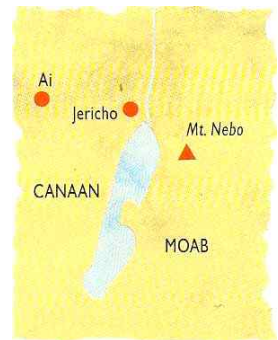
성경뿐 아니라 과학적 내용에도 덮개효과는 설득력 있는 해답을 준다. 노아홍수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화석들은 오늘날에 살고 있는 동식물보다 그 크기 면에서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준다. 공룡과 매머드도 그렇고, 1미터씩이나 되는 잠자리나 암모나이트 화석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커다란 동물들은 홍수이전의 환경에서는 살기에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지만, 홍수 이후의 변화된 환경은 그 적응한계를 넘기 때문에 홍수 후에 살아 남기에 적합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처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 모습이 변질되고 악화된 곳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더욱더 감사할 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더욱 구체적인 방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따름이다. 할렐루야!!!**

출처: <http://www.hisark.com> **참조**

아간의 죄와 아이성의 정복 (Achan's Sin and the Conquest of Ai - 수 7-8)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조심스럽게 따랐고 여리고 도시를 점령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의기양양하게, 그들은 다음 공격 목표인 아이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위대한 승리를 기대했다. 그러나 실패하자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전리품

노획물, 약탈품, 전리품 등은 모두 같은 사물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즉, 패배시킨 적으로부터 취한 유용하거나 귀중한 물건들을 말한다. 승리자는 패배자의 땅과 도시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었다. 여기에는 동물, 여자 및 아이들, 값진 금속들, 보석, 무기, 의류 및 기타 다른 많은 목록이 포함된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때로 이것은 백성들이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여리고의 경우가 그랬는데, 모든 것을 전적으로 파괴시키되, 값진 금속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가져가야 했다(수 6:18-19,21,24).

전쟁이 끝나면, 누군가를 죽였거나 심지어 시체를 만진 사람도 일주일간 지속되는 정결례를 따라야 했다. 이 주간 동안 군인은 모든 노획물과 함께 진영 밖에서 머물렀다. “불순물의 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물 혼합물을 사람과 노획물에 두 번 뿌렸다. 군인은 자기의 옷을 빨았고, 진귀한 금속은 뜨거운 불꽃 속에서 정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군인과 제사장과 장막과 진영의 다른 사람들이 노획물을 나눴다. 통상적으로 포로 500명당 한명은 장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으며, 매우 훌륭한 물건은 하나님께 드렸다.

아이

그 도시의 이름은 “돌 무더기”를 뜻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이 도시를 완전히 파멸시켰다. 아마도 수년 후에 도시를 다시 건설했을 것이지만(대상 7:28; 느 11:31; 사 10:28), 다시 한번 사라졌거나 파멸되었을 것이다.



〈이 그림과 다음 그림의 폐허는 고대 아이라고 짐작되는 곳이다.
베델로부터 남동쪽으로 3킬로미터(약 2마일) 거리에 있다.〉

어떤 고고학자도 고대 도시 현장을 발견했다고 확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델에서 남동쪽으로 3킬로미터(약 2마일) 거리에 있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며, 오늘날 거기에는 큰 폐허 더미가 놓여있다. 최근의 발굴에 의하면 아이성은 여호수아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 약 1,000년에 걸쳐 아름답고 번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호수아가 그 도시를 정벌하려고 처음 시도했을 때, 그의 군대는 호되게 패배했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이었다. 아간이 벌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쉽게 아이성을 정벌하였다(수 7:1-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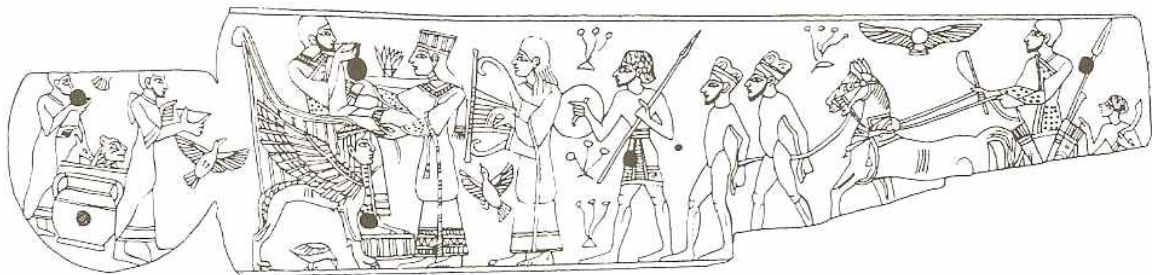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
며 - 수 8:28, 개역개정

세켈

아간은 자기 죄를 고백한 후에 장막으로 가서 흠친 전리품을 꺼냈다. 그것은 아름다운 옷과 은 200 세켈, 무게가 50세켈인 금막대였다(수 7:21).

세켈은 고대 팔레스타인 근방에서 사용하는 표준 무게였다. 그러나 이 “표준” 무게는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랐던 것 같다. 때때로 왕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크기와 무게의 세켈을 사용했다. 세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상징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이유로, 아간의 전리품에 대해 정확한 무게나 양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성경시대를 통하여 세켈은 8 내지 16그램의 무게였는데 이것은 약 0.3에서 0.6 온스에 해당한다. 이것이 맞다면 아간은 60-120 온스의 은과 15-30 온스의 금을 훔쳤을 것이며, 요즘의 가치로 2천2백만원(\$20,000)에서 약 3천4백만원(\$35,000) 사이이다.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은만 가지고도 아간이 노예 10명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사사 시대 초기에 가나안의 방백 혹은 왕이 원정을 이끌었으며 포로들을 데려왔는데 아마도 그들을 노예로 삼았을 것이다. 수염이 있는 죄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이며, 왕이 그들을 불러내서 사발로 술을 마시며 수금 음악을 울리며 승리를 축하했을 것이다. 동일한 왕이 전차를 타고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다. 아이성의 통치자는 히브리인들이 처음에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와 유사하게 승리를 축하했을 것이다.〉 **참조**

모세언약

II. 주제연구

1) 모세 언약 (The Mosaic Covenant)

출애굽기 24:1-11을 정독하십시오. 언약을 맺는 과정을 주의 깊게 상고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쏜 개진 짐승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분의 생명을 걸고 일방적으로 성취하시겠다는 비 조건적 계약(unconditional covenant)이었습니다. 다음의 모세 언약을 주의 깊게 정독해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반)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6-8)

Moses took half of the blood and put it in basins, and the other half of the blood he sprinkled on the altar. Then he took the book of the covenant and read it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and they said, "All that the LORD has spoken we will do, and we will be obedient!" So Moses took the blood and sprinkled it on the people, and said, "Behold the blood of the covenant, which the LORD has made with you in accordance with all these words.", - Exodus 24:6-8, NASB

여기서 나타난 모세 언약(Mosaic Covenant)은 조건적입니까? 비 조건적입니까? 일방적입니까? 쌍방적입니까? 모세 언약은 그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로 맺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즉, 율법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축복과 저주가 언약을 맺은 상대방의 행위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중심이 되는 모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 조건적이며 쌍방적인 모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아닐 경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로 치참하고 무기력하게 죄와 율법 아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약속하였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얼마나 그들과 흡사합니까?)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와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7)

- 언약을 맺은 후에 어떠한 행사가 있었습니까?(11절) 이것은 신약에서 어떠한 행사와 유사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9,11)

모세 언약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신명기 30:15-20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 언약이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구속과 은혜의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고찰해 보십시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신명기 30:16-18상)

하나님께서서는 어떠한 상황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율법을 지키며 순종의 삶을 살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나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14)

만약 구원이 은혜의 언약(새 언약)이 아니라 율법의 언약(옛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어떠했을까를 묵상해 보십시오.(만일 각 개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린하여 점수를 매긴 후 평균 99.9를 받은 사람만, 또는, 여호와와 증인처럼 144,000명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참조**

카멜레온 (Chameleon)

이번 호에서는 스무고개로 이 피조물을 맞춰볼까요?

질문 1> 하나님께서 제게 등뼈를 주셨어요.

질문 2> 도마뱀 종류로 분류되어 있어요.

질문 3> 그리스어로 이름이 “땅의 사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 4> 하나님께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꼬리도 주셨지요~

질문 5> 이슬과 빗물을 마시지만, 피부로 물을 흡수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질문 6> 약 4개월마다 허물을 벗어요.

질문 7> 한 번에 최대 30개 정도의 알을 주로 낳지만, 제 친구 중에는 새끼를 낳기도 하는데, 30마리까지 낳았대요.

질문 8> 허파를 불룩하게 해서 가슴우리(흉곽)를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어요.

질문 9> 다른 도마뱀들과는 달리, 기지 않고 한 번에 다리 하나만을 움직이면서 천천히 걸어요.

질문 10> 하나님께서 맛봉오리(bud tastes, 혀의 미뢰)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질문 11> 머리와 몸만큼 기다란 혀(20에서 30센티미터)를 주셨어요.

질문 12> 3초 만에 4마리의 파리도 잡을 수 있대구요~

질문 13> 원래는 식물을 먹었지만 대홍수 사건 이후로는 대개 곤충을 먹어요.

질문 14> 혀에 뼈를 주셨어요.

질문 15> 냄새는 정말 잘 못 맡아요.

질문 16> 대부분 나무에서 살아요.

질문 17> 통방울눈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 18> 어떤 친구들의 머리뼈는 세라톱스류와 닮았어요.

질문 19> 그 친구들은 머리에 뿔을 두 개 혹은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피조물인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쉽진 않겠지만, 마지막 질문을 듣고는 답을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 20> 몸의 색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이젠 어떤 피조물인지 알겠지요? 네, 바로 카멜레온이에요.



잭슨카멜레온 혹은 세뿔달린 카멜레온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Chamaeleo>

잘 알다시피, 카멜레온은 자기가 앉아 있는 곳에 따라 몸의 색깔을 바꿔서 먹잇감을 찾는 다른 포식동물이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도 때때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거나 말하진 않는지요? 저도 솔직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늘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행동하거나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써 밝은 빛을 발하기를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때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요?

날마다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능력의 말씀되는 **로마서 (Romans) 12:21**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 새번역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 NASB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